

벨기에 사진작가 부부 위그 & 카롤린 뒤부아

## “전통과 현대가 대조적이면서도 조화로워”

벨기에 사진작가 위그 뒤부아·카롤린 뒤부아(Hughes & Caroline Dubois) 부부는 원시미술 사진 분야의 대가다. 지난 35년간 중앙아프리카 왕립 박물관·루브르 박물관·시카고 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박물관, 갤러리와 협업해 3만8000여 점의 세계적 예술품들을 5만 점이 넘는 사진으로 담아 157권의 사진집을 펴냈다. 이들의 사진은 그 자체로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네스코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의 구석구석을 촬영해 ‘보름달 아래의 보로부두르’라는 순회 전시를 열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보름달이 뜬 밤에만 촬영했다”며 직접 보여준 포토폴리오와 영상 자료들은 빛과 어둠의 오묘한 조화를 끌어내며 마치 보로부두르의 신비가 곁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보름달이 뜬 밤에만 촬영하다 보니 3년이나 걸렸죠. 보로부두르 외벽 부조에 빛을 부여하는 작업이었는데, 어두운 암실에서 사진이 탄생하듯 부조에 새겨진 붓다의 삶을 빛으로 드러낸다는 의미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보름달을 고집한 건 보름달이 불교에서도 많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사원이 주는 감정을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보름달 밤의 불빛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관객에게 우리가 사원에서 밤에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카롤린)

이들은 아프리카 조각 등 원시미술에 천착한 자신들의 작업을 “조상들의 작품 초상화를 찍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곧 자신들의 주제라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건 모든 문명에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유럽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바깥의 제례에 관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아메리카대륙 발견 이전의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원시미술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원시미술 자체가 내 주제고, 거기에 나름대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해 다시 살게 하는 작업입니다.”(위그)

중국·일본미술 컬렉터와 작업한 적은 있지만 한국은 ‘미지의 나라’였다고. 이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여있는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엔 느낀 게 많다”며 “특히 ‘고요함’이 인상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에 대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저도 예술에서 ‘고요함’을 중시하거든요. 음악에도 고요함이 없다면 가치가 없듯, 사진에도 여백과 고요가 있어야 시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가쿠박물관 한옥에서 불교 사원과도 같은 고요를 느꼈는데, 특히 여성의 공간에서 시적인 느낌을 받았어요.”(위그) “리움에서 본 고려청자에서도 고요함을 발견했죠. 백자도 아름답지만 청자만의 고유한 빛깔에서 고고한 수준이 느껴졌고 그래서 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을 풍기는 것 같더군요.”(카롤린)

이번 문화소통포럼(CCF) 2017은 ‘렌즈를 통해 본 한국’이란 부제 하에 총 18개국 내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담긴 사진·동영상 콘테스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대상 수상작인 강병인 캘리그래피와 임채욱 사진작가의 동영상 ‘아름다운 한국 그리고 한글’에서도 ‘고요’를 찾아냈다. “영상의 이미지가 주는 시적 울림과 캘리그래피의 어우러짐이 절묘했어요. 한글의 우아함도 인상적이었는데, 한글에는 다른 문자에는 없는 공간감이 있더군요. 마치 캘리그래피 자체에서 음악이 들리는 듯 했는데, 그만큼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문자인 것 같아요.”(위그)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 발굴’을 테마로 한 행사인 만큼 이들도 짧은 일정 속에 나름의 한국적인 이미지를 발견하려 애썼다. 결론은 경복궁 야경을 감상하며 느낀 “현대와 전통의 대조 속 조화”였다.

“궁전이라는 전통의 공간이 매우 현대적인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만난 여성들은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런데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그 불빛 때문에 어둠 속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불빛 속에 여러 가지 대조가 모두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한복만 봐도 그래요. 벨기에나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전통의상을 입지 않고, 축제 때 간혹 입은 걸 봐도 현대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런데 한복에는 현대적인 이미지까지 있더군요. 장 폴 고티에가 디자인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웃음)”(카롤린)

이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인 원시 미술과 제사의 의미를 가진 꼭두, 그리고 한국의 자연풍경을 좀 더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 주제가 원시 미술이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에서도 작업을 하고 싶네요. 전통과 현대의 대조와 공존이라는 역할은 자연과 기술로도 이어지고, 그게 바로 한국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자연과 기술은 곡선으로 이어지더군요. 공항에서부터 곡선이 많이 놀랐는데, 돌아다니며 보니 서울 풍경의 곡선들이 공항에서 일하는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연의 울림이 현대 문명의 곡선에 반영되고 있달까요. 곡선은 직선보다 강하고 안정적인 선이죠. 한국과 한국인에게서도 그런 곡선의 느낌을 받았고, 그게 한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위그) ●

글 유주현 객원기자 yjoo@joongang.co.kr



위그 & 카를린 뒤비아 부부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을 비롯해 세계의 원시 미술을 빛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